

People with Life Science

KOSEN Community Cafe

글 _ 강효찬 · 인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박사과정
taifun@pusan.ac.kr

KOSEN의 전문카페이자 핫 카페인 'People with Life Science(PLS)'는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7월에 초대 사장이었던 김성환 박사(현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2006년 12월 현재 회원수는 398명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PLS는 일명 '생명카페'라고 불리지만 PLS는 말 그대로 자연과학 분야에만 국한된 카페가 아닌 life science를 다루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카페다. 때문에 공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 회원들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의 교류 또한 활발해 해마다 집담회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카페 회원들끼리 세미나를 열 정도이니, 온라인상의 활동은 짐작이 갈 것이다. 연구를 하다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딜레마는 회원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해결되곤 한다.

어떤 회원의 경우, 실험에 쓸 재료가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우연히 우리 카페를 알게 되어 글을 올렸는데, 다음날 바로 다른 회원과 연락이 되어 뜻밖에 풀리지 않던 실험이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실, 이런 사례는 그리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또한 KOSEN의 메인 메뉴중 하나인 'What Is?'와의 연계를 통해서 카페 내부에서만 아니라 외부로의 질문과 답변이 가능해, KOSEN 전체 회원들과 실험상의 노하우와 방법 등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다.

PLS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논문교환은 다른 카페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연구기관이나 학교에 계셔서 논문교환은 특히 활용도가 높다. 특히 개인적으로 다 구할 수 없는 특정 저널을 교환하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

PLS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 R&D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린 카페'를 지향할 계획이다. 



PLS 정기모임



PLS 2차 정기모임

*카페수: 23개, 카페 회원수: 3,160명
코센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큰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으나, 회원들 간에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있다. 친목도모 카페, 정보공유 카페, 특정분야 연구자들이 모이는 전문카페 등 여러 형태의 카페가 있다. 코센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매월 우수카페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모임 지원 제도도 마련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장려하고 있다.

KOSEN 카페간?